

[P1-18]

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₂, vitamin B₆ 섭취량 및 수유시의 생활습관이
성숙유내 vitamin B₂, vitamin B₆ 함량에 미치는 영향천윤미^{1*}, 김영주², 박은애³, 장남수¹¹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, ²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 교실, ³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 교실

임신 중에는 vitamin B₂, vitamin B₆의 필요량이 증가되고, 임신 중의 vitamin B₂ 섭취량과 신생아의 출생체중이 관련이 있다 보고된다. 더욱이 출생 후 상대적으로 hypoxic한 환경에서 활성산소형성의 위험이 있는 hyperoxic한 환경에 신생아가 노출됨에 따라 glutathione reductase의 조효소로 작용하는 vitamin B₂ 영양이 중요하리라 생각된다. vitamin B₆는 영아의 에너지대사와 정상적인 신경계 발달을 위해 요구된다. 영아에게 있어 vitamin B₆ 결핍 시 발작을 포함하는 행동장애가 보고된다. 모유수유 영아들은 생후 4~6개월까지 발육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모유로부터 공급받게 되는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체의 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₂, vitamin B₆ 섭취량이 성숙유내 vitamin B₂, vitamin B₆ 함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. 임신 24~28주 사이의 임신부 38명(평균연령 28.0±3.2)을 대상으로 섭취실태를 조사하고, 분만 후 섭취실태 재조사와 생활습관을 조사하였으며 6.1±1.5주의 성숙유를 채취하였다. 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₂, vitamin B₆ 섭취량은 24시간 회상법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영양소 및 식품군별 섭취량 분석은 Can-pro 2.0을 이용하였다. 성숙유내 vitamin B₂, vitamin B₆ 수준은 HPLC-fluorescence detector방법으로 분석하였다. 이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(version 11.0)를 이용하였다. 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₂ 평균 섭취량은 각각 1.2±0.5mg, 1.2±0.4mg 였고 vitamin B₆ 평균 섭취량은 2.1±1.1mg, 1.9±0.8mg으로 권장량 70%이상의 수준이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. 신생아의 신장, 체중, 재태연령은 임신중기의 vitamin B₂, vitamin B₆ 섭취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. 성숙유내 FAD, FMN, riboflavin 농도는 779.5±397.8nmol/L, 137.0±74.4nmol/L, 68.7±49.0nmol/L 였고 pyridoxal 농도는 749±287.0nmol/L였다. 성숙유내 riboflavin 농도는 임신중기(r=0.405, p=0.029)와 수유시(r=0.434, p=0.030)의 vitamin B₂의 섭취량과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. 임신중기와 수유시 vitamin B₆를 많이 섭취하여도 성숙유내 pyridoxal 농도는 증가되지 않았다. 수유시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대상자의 성숙유내 FAD 수준이 그렇지 않은 대상자 보다 낮았으며(p=0.032) 수유시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는 대상자의 성숙유내 FMN 수준이 건강보조식품을 섭취하지 않는 대상자보다 높았다(p=0.028). 성숙유내 riboflavin 함량이 중간값 이상인 경우 수유시 식품군별 섭취량 중 육류 및 그 제품,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량이 성숙유내 riboflavin 함량이 중간값 미만인 그룹보다 높았다(p=0.034, p=0.022). 성숙유내 pyridoxal 농도는 식품군별 섭취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. 성숙유내 vitamin B₂의 농도는 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₂ 섭취량과 수유시 생활습관의 영향을 받는 반면 성숙유내 vitamin B₆ 농도는 임신중기와 수유시의 vitamin B₆ 섭취량과 수유시 생활습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2001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연구비 (01 -PF1 - PG1-01CH15-0009)에 의해 일부 진
행되었음.